

지지율 좁혀진 美 대선 TV토론이 분수령

힐러리, 4.1%P 앞서...한 달 만에 격차 반토막

26일 뉴욕서 시작 내달까지 3차례 토론 열려

미국 대선이 두 달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이달 말 있을 대선후보 간 첫 TV토론이 후보 간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간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이라 두 캠프 모두 승부의 분수령이 될 TV토론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클린턴과 트럼프의 캠프 모두 9월을 백악관 입성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면서 클린턴과 트럼프가 맞붙는 첫 토론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4일(이하 현지시간) 분석했다.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펼쳐지는 3차례의 TV토론 승부가 백악관 주인공 가리기에 큰 영향을 끼친 만큼 1차 토론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게 무

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최근 지지율 하락에 고전 중인 클린턴 캠프에선 TV토론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리얼리터리얼리티의 평균 지지율에서 클린턴은 트럼프에 4.1%포인트 앞서 있다. 클린턴이 이기고는 있지만 지난달 초 격차(7.9%포인트)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신뢰성 추락과 지지율 하락의 위기에 서 벗어날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한 시점에서 클린턴 캠프는 이달 26일에 있을 TV토론에 기대를 걸고 있다. 토론의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클린턴 캠프는 몇 주 전에 이미 조직적인 토론 준비에 돌입했다. 클린턴 측은 TV 토론팀은 토론 베테랑 론 클라인과 변호사 캐린 던이 이끌고 있다. 캠프 선대본부장인 존 포데스타와 수석 선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거전략가 조엘 베네펠스, 언론특보 맨디 그린월드 및 집 마굴리스 등도 클린턴의 토론 연습을 돕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클린턴은 참모들이 챙겨준 두꺼운 정책 자료집과 트럼프를 향한 공격 자료를 꼼꼼히 읽고 있다.

트럼프 캠프에도 TV토론은 중요하다. 지지율 면에서 최근 트럼프가 맹추격하고 있지만 판세를 뒤집었다는 평가는 아직 부족하다. 매일 자체 예측조사 결과를 업데이트하는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날 현재 클린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85%로 나타났다. 최고치인 89%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TV토론에서 인상적인 활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트럼프의 토론 준비는 클린턴보다는 늦었다. 트럼프는 최근에서야 토론 준비를 위한 회동을 했다. 모임에는 캠프 총책임인 스티브 배넌, 켈리엔 콘웨이 선대본부장, 로저 에일리 전 폭스뉴스 회장과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시너 등 가족들이 참석했다. 토론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클린턴 측과는 달리 트럼프는 캠프 내 지지인들을 중심으로 토론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리얼리티쇼 진행자 출신인 트럼프가 토론 재능이 풍부하므로 모의 토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미 대선 TV토론은 이달 26일 뉴욕주 웨스트데이에 이어 10월 9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같은 달 19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17 해제의 황후 가남풍

가남풍(賈南風, 257-300)은 사마염이 세운 서진의 2대 황제 해제의 황후다. 위·진 정권의 실력자인 가구의 손녀이고 가충의 딸로 많은 왕족과 대신을 죽이는 등 전횡을 일삼다가 폐위되고 죽임을 당하였다.

그녀는 키가 작고 피부도 검고 용모가 추했다고 한다. 무제 사마염은 태자인 사마충의 배필감으로 중신 위관을 의식을 은근히 마음에 두었다. 그러나 황후와 대신들이 가씨 집안의 뇌물공세에 넘어가 가충의 여식을 태자비로 간택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무제는 가씨 집안과 혼사를 맺게 되었다. 당초에는 가충의 여식 중 제일 인물이 뛰어난 가오를 시집보내려 했으나 발육이 늦어 부득이 15세가 된 가남풍을 황실에 보냈다고 한다. 그녀는 아버지 가충 덕에 태자비가 되었다.

할 것을 건의했다. 무제는 황태자를 시험하기로 했다. 태자가 시험지를 받아 그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쓰지 나치게 뛰어난 문장은 피하고 중요한 요점만을 밝히도록 했다. 시험지를 받아본 무제는 “이 정도면 천자의 지위는 감당하겠군”이라 말하고 더 이상 폐위 문제를 거론지 않았다.

해제 즉위 후 그녀는 매번 정사에 간섭하려 하였다. 그러나 빈번히 태부양준에게 견제당하자 양준이 역모를 꾸미겠다고 모함해 양준을 죽이고 황후를 폐위시켰다. 그녀는 천정오빠 가모와 해제 동생 조왕 사마위를 부추겨 양준을 기습해 죽였다. 양준의 처인 방씨를 살리기 위해 양태후는 자신을 ‘침’이라고 칭하면서 애원했으나 결국 물이 뛰어난 가오를 시집보내려 했으나 발육이 늦어 부득이 15세가 된 가남풍을 황실에 보냈다고 한다. 그녀는 여남왕 사마량과 위관을 불러 정권을 맡겼으나 그녀는 사마위를 쫓겨 그

사치·음란 악명 떨치다 비극적 최후

그는 사마소의 반위 쿠데타의 일등 공신으로 사마씨 정권이 수립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무제가 동생 사마유 대신 아들 사마충을 태자로 삼은 것도 가충의 영향이 컸다.

그녀는 성격이 잔인해 사마충의 다른 후궁들을 잔혹하게 죽였다. 무제는 이에 크게 진노해 그녀를 유폐시키려 했지만 대신들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사마충은 일찍부터 아둔하고 학문에 뜻이 없었다. 이를 격정한 무제는 궁녀인 사구를 태자에게 후궁으로 보내 황손 사마흠을 낳았다. 어느날 한 밤중에 궁중에 화재가 났는데 무제가 망루에 올라가 멀리서 바라보았다. 다섯 살인 사마흠은 황제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어두운 곳으로 이끌며 “늦은 밤 급박한 상황입니다. 마땅히 비상시에 대비해 불빛이 군주를 비추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해서는 안됩니다”고 말하였다. 무제는 황손이 선제인 사마의와 비슷하다며 칭찬하였다. 태자가 재주가 없었으나 황손의 명석함과 지혜를 믿어 태자를 폐립하지 않았다.

머리가 좋고 지략이 뛰어난 그녀 덕에 남편 사마충이 황제가 될 수 있었다. 사마충은 백치 태자로 지칭되어 무제의 근심이 많았다. 중신 위관은 어느날 능운대에서 벌어진 연회에서 옥좌를 만지며 “이 자리는 태자에게 너무 과분하다”고 태자 문제를 재고

들을 죽였다. 사마위도 죽이고 장화를 재상으로 삼았다.

권력을 틀어쥔 그녀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태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임신했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여동생 가오가 낳은 아들을 자기 낳은 아들이라고 했다. 사구가 나온 사마흠을 죽이고 데려온 아들을 태자로 세웠다. 그녀는 사마흠을 죽이기 위해 약을 먹고 황제와 황후를 죽이겠다는 글을 강제로 쓰게 했다. 결국 폐서인으로 강등되고 태의령 정거가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

그녀의 사치와 음란이 도를 넘어섰다. 태의령 정거와 정을 통하더니 이후에는 잘생긴 소년을 보면 길에서 나치며 궁중으로 데려와 정을 통한 연후 죽여 버리곤 했다. 황태자 사마흠을 죽인 일과 그녀의 계속된 음란행위에 사마씨 왕족이 들고 일어났다. 일족의 원로인 조왕 사마율이 궁중으로 들어와 해제를 감금하고 그녀를 체포했다. 그녀는 금용성에 유폐되어 독주인 금설주를 마시고 사사됐다. 강의잔인(剛毅殘忍)한 면에서 그녀는 전한의 여태후, 당의 무척천, 청의 서태후에 비견된다. 그러나 음란한 점에서는 중국 역대 황후 중 으뜸일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에 받았습니다.



테레사 수녀 시성식 12만 신도 모여 환호

4일(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광장에서 열린 테레사 수녀의 시성식에 온 군중들의 모습.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로 거행된 이날 시성식에는 12만 인파가 몰려 테레사 수녀의 성인 추대에 환호했다. /연합뉴스

23세 네이션 로, 홍콩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2014 우산혁명’ 주역

2014년 홍콩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입법회의원(한국의 국회의원 격)선거에서 우산혁명의 학생지도자가 최연소로 당선되는

돌풍을 일으켰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사상 최고인 58%까지 치솟은 가운데 홍콩 자치 및 민주화를 지지하는 젊은층의 여론이 표심으로 나타났다. 분석이 나온다. 우산혁명 세력의 입지 확장을 경계해온 중국 측의 우려도



석이 걸린 홍콩섬 지역구에 처음 출마해 5만818표를 획득, 2위로 당선됐다. 특히 로 주석은 1991년 28세로 당선된 제임스 토

예상된다. (梁耀申) 민주당 의원의 최연소 입법회의원 당선 기록을 25년 만에 깨뜨렸다.

로 주석은 2014년 대학학생회 연합체 홍콩전산학생연회의 상무위원 겸 홍콩 링난대 총학생회장으로서 9월 28일 진행된 행정장관 보통선거 도입을 요구하며 시작된 도심 점거 시위를 주도했다.

로 주석은 지난 3월 10일 내 홍콩의 미래를 결정할 국민 투표 실시를 주장하는 데모시ست도당을 결성했다. /연합뉴스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매매 - 상담 후 결정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곡성, 농가 전원 주택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실평), 텃밭
- 1층, 2012년 준공, 시멘트 벽돌조
- 광주에서 25분, 금호타이어에서 1분
- 시세 8천만원, 매매 5200만원

청풍동, 임야

- 북구 청풍동 산272번지
- 2339평, 신촌마을 부근
- 인근까지 차량통행 가능
- 시세 3천만원
- 매매 - 1500만원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매매합니다! 회사직거래 / H.010-3605-5000

장성, 전원주택지

- 동화면 남산리 1073-7번지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코너
- 36세대 중 20세대 거주 중
- 시세 1억, 주변환경 깨끗
- 매매 - 7200만원

나주, 근린주택

- 공산면 금곡리 877-2번지
- 1층, 대지 42평, 건물 43평
- 농협건너편, 2차 대로에 접함
- 시세 8천만원, 위치 좋음
- 매매 - 5200만원

장성, 서삼면 농지

- 서삼면 장산리 691-1번지
- 333평, 코너, 교통최고 요지
- 생산관리지역, 축령산 5분
- 시세 1억 3천만원,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9900만원
- 전원주택, 펜션 최고 장소